**제7차 총회**

* **개요**

|  |  |  |
| --- | --- | --- |
| 기간 | 2008-09-01 ~ 2008-09-04 |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산둥성 |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산둥성 | |
| 참가 | 5개국 47개 자치단체 |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베이성,  후난성, 랴오닝성(옵),산시성(옵:山西),산시성(비회원:陝西) |
| 일본국 |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효고현, 시마네현,  군마현(비), 와카야마현(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몽골국 | 움느고비아이막, 다르항오올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 오르홍아이막, 우브르항가이아이막, 울랑바타르시, 바양홍고르아이막, 볼강아이막, 아르항가이아이막, 훕스굴아이막, 도르노드아이막, 옵스아이막, 홉드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브랴티아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톰스크주, 투바공화국, 알타이변경주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총회 개최지 결정 : 경기도** |  | |  | | | |  | **▷NEAR 상설사무국 연임제안(경상북도)**  •2012년까지 NEAR 상설사무국 연임 |  | |  | | | | **▷해양 어업 분과위원회 신설 및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산둥성)**  **▷관광 분과위원회 신설 및 코디네이터 담당 신청(허난성)**  **▷회비제 제안(하바롭스크변경주)**  •연합회비제는 연합사무국에 위탁한다. 연합사무국은 각국 회원자치단체로 부터 국가별 1인의 대표를 추천받아 '회비제도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 차기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  **▷연합 신규회원 가입(5개단체)** | | | | |

* **산둥선언문**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7차 총회에 참가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한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의 5개국 40개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고, 지역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이래 경제, 환경,문화,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산둥성 총회에서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이란 주제로 회원단체간의 신뢰, 호혜, 상생의 “하나되는 동북아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펼쳤으며, 연합내부 회원간 실무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건설하는데 연합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연합은 회원단체들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뢰, 호혜,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조화로운 동북아를 건설 한다.

2. 연합은 인적,물적,정보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에 노력한다.

3. 연합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환영하는 열린 동북아 건설에 노력한다.

4. 연합은 황사의 발생과 피해 저감, 지구온난화 대책 등 지구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시책을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

5. 본 총회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과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1) 총회는 2010년에 열리는 제8차 총회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개최한다.

2) 총회는 2012년 9월까지 다음 회기 연합사무국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둔다.

3) 총회는 중화 인민공화국 산둥성이 제안한『해양ㆍ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 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산둥성이 맡는다.

4)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허난성이 제안한「관광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허난성이 맡는다.

6. 연합회비제는 연합사무국에 위탁한다. 연합사무국은 각국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별로 1인의 대표를 추천받아 ‘회비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 차기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한다.

7. 총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러시아연방 마가단주 등 5개의 자치단체 신규가입을 의결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이상의 선언 및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9월 2일